

사랑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인연들

호스피스완화의료 봉사자 김현애 마리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 등 아름다운 꽃들이 어김 없이 봄의 언저리에서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듯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계절의 변화도 빠른 속도로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17년 전 당시 중학생이던 저희 작은 아들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진단을 받고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갑자기 찾아온 병마 앞에 저희 가족 모두는 망연자실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병실 방문을 통하여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지속적인 방문과 기도,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보여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저희들에겐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은 동종 골수이식을 통해 완치가 되었으며 그 인연으로 저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로서 말기암 환자들을 방문하며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또 그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지, 그 분들의 대화속에 숨겨진 의도는 어떤 것인지 방문을 하면 할수록 부족함과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임상사목 교육 등 여러가지 교육을 통하여 그 분들과의 만남을 사목적인 대화나 열린 질문으로 시도함으로써 상담기법을 조금씩 발전시키며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간직한 채 힘겨운 투병 중에도 삶의 의지를 보이셨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얼마 전, 남겨진 어린 아들 걱정에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신 한 자매님과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이 지면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분이셨고 6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호전되어 잘 지내시다가 전이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는 식사도 잘 하시고 항암치료도 잘 견뎌내며 저희들이 방문하면 활짝 웃으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던 소탈하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던 자매님.

결혼 후에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며 첫아들도 낳고 꿈에 그리던 집 장만도 했지만, 함께 살던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경제적인 개념이 부족하고 유아적인 성격의 남편과의 소통 부재로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첫아들이 6살 때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면서 둘째아들을 임신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아 지금 5살이 되었다며 핸드폰 속에서 활짝 웃는 아들을 보여주며 미소 짓다가도 아직 아이들이 어려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게 되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리던 자매님...

어린 아들들을 생각하며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온몸이 부종과 통증으로 움직일 힘조차 없음에도 다리에 힘을 길러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억지로 다리운동을 하며 눈물겹게 삶의 의지를 보이셨던 분이기에 더욱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키워 본 같은 엄마 입장에서 그 자매님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제발 이 자매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될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릅니다.

자매님이 병상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시며 병원에도 자주 오셔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며느리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시는 시어머님께 너무 고마워하며 남은 아이들을 부탁드린다며 눈물 흘리시고 용서를 청하던 자매님..

3개월 남짓 자매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분의 내재된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오랫동안 가족 간에 이루어지지 못하던 화해가 실현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진실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매님은 엄마로서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미안함, 애잔함에 얼마나 슬프고 아팠을까를 상상하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 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매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파 하였던 두 아들들의 수호천사가 되어 저 높은 곳에

서 언제나 지켜주고 행복을 빌어 주고 있으리라는 것을...

더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서 그 분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마음에 담으며 그 분들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그 분들에게 진실 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의 빛이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리라는 작은 소망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힘차게 걸음을 옮겨봅니다.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후원회 가입 안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은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이며,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입니다.

호스피스는 환우들이 여생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우면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 후원금입금통장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724073 · 국민은행 994437-01-003288 · 농협 301-0067-5700-11
· 신한은행 100-026-725929

■ 예금주 :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문의전화 : 02)2258-7039

여러분들의 따뜻한 작은사랑이 어떤이들에게는 희망과 평화입니다.
입금 후 협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